

보도 일시	2022. 1. 19.(수) 09:00	배포 일시	2022. 1. 19.(수) 09:00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 윤태욱 (044-203-2811)
		담당자	서기관 변상봉 (044-203-2821)

영세 중소 관광업체 금융 지원 강화해 조기 회복 돕는다

-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역대 최대 규모 1천3백억 원으로 확대,
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 개선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를 최대 규모 1,300억 원으로 확대하고,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.

신용보증부 특별용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,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(신용보증재단)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최대 2억 원 용자 지원, 2천만 원 이내 소규모 자금 보증심사 생략

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는 최초 도입한 '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,300억 원을 지원한다.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. 특히 '22년에 한해서는 용자금리 0.5% 포인트(p)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.2% 포인트(p)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.

* '23년 이후 용자금리 1%, 보증 취급수수료 0.5%

특별용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 21일(금)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(전국 144개)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(전국 1,138개)에서 용자를 받으면 된다. 특별용자의 구체적인

내용과 조건은 1월 19일(수) 문체부 누리집(www.mcst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,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실시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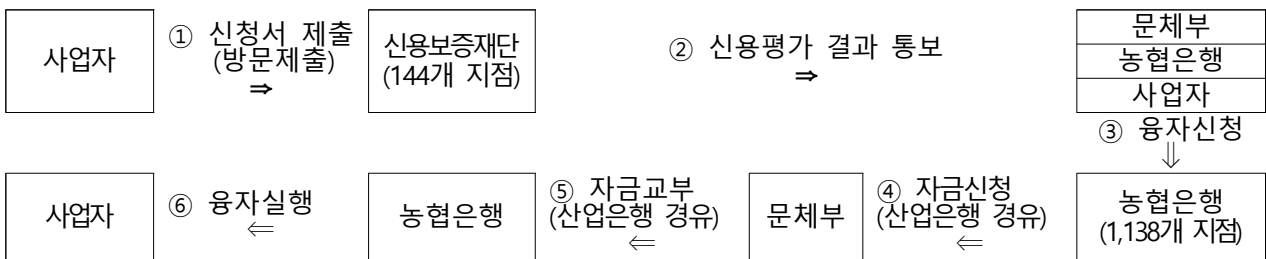
□ **추진배경**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,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

□ **융자지원 내용**

- (지원규모) 운영자금 1,300억 원
- (지원대상) 신용평점 355점 이상으로, 관광사업*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
* 여행업, 호텔업 등 35개 업종(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)
- (융자금리) 1% ('22년 0.5%, '23년 이후 1%/ 변동금리)
- (지원한도) 최대 2억 원
- (상환기간) 3년 거치 3년 상환
- (보증료율) 0.5% ('22년 0.3%, '23년 이후 0.5%)

□ **지원 절차**



□ **추진일정**

- (지침공고) '22. 1. 19.(수) * 문체부 누리집, 일간지, 유관기관 누리집 등
- (융자시행) '22. 1. 21.(금)